

**YWCA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보수)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2012 Vol. 489 04 April  
**YWCA**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b>가</b>	<b>다</b>	서 울 02.3705.6000	울 산 052.247.3520	천 안 041.575.0961
강릉 033.651.1385	대구 053.652.0070	서 천 041.951.6400	원 주 033.742.6090	청 주 043.265.3700
거 제 055.682.4950	대전 042.254.3035	성 남 031.708.2503	의정부 031.853.6332	춘 천 033.254.4878
경 주 054.772.8141	동 해 033.531.3007	세 종 041.865.0872	익 산 063.857.8910	충 주 043.848.3240
고 양 031.919.4040	<b>마</b>	속 초 033.635.3523	인 천 032.424.0524	<b>타</b>
광 명 02.895.1966	마 산 055.246.8746	수 원 031.252.5111	<b>자</b>	통 영 055.646.2547
광 양 061.762.0012	목 포 061.242.1611	순 천 061.744.7990	전 주 063.224.5501	<b>파</b>
광 주 062.524.3511	<b>바</b>	<b>아</b>	제 주 064.711.8322	파 주 031.945.5998
김 해 055.332.6000	부 산 051.441.2221	안 동 054.854.5482	제 천 043.646.6009	평택 031.651.7701
<b>나</b>	부 천 032.668.9700	안 산 031.483.6536	진 주 055.755.3463	포 향 054.274.4444
남양주 031.577.7762	<b>사</b>	안 양 031.455.2700	진 해 055.542.0020	<b>하</b>
남 원 063.632.7002	사 천 055.833.2344	양 산 055.367.1144	<b>차</b>	하 남 031.793.7771
논 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여 수 061.654.2161	창 원 055.283.9488	

※ 조차원Y가 세종Y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금까지, 지금부터



글 | 강교자(연합회 실행위원, 직전회장)

# 90th Anniversary

## Cover Story

### 한국YWCA 창립 90주년 기념식 및 제1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4월 20일 한국YWCA 100주년의 첫 걸음인 창립 9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전국의 회원Y 대표와 내·외빈 300여 명이 한국Y 90주년의 역사를 감격 속에 축하하며 100주년을 향한 힘찬 행진을 축하하였다.

# Contents

2012 Vol.489 04

- 03 90주년 특별기고 ● 지금까지, 지금부터 | 강교자
- 04 YWCA 역사읽기 ● 기독교와 YWCA | 최만자

## Special YWCA 90주년 지금 이순간

- 06 ● 창립 90주년 기념식 및 제1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 편집실
- 08 ● 사진으로 보는 창립 90주년 기념식 및 제1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 10 ● 90주년 축하메시지 | 세계YWCA 회장 외
- 12 ● 90주년 축하메시지 | 회원YWCA
- 14 ● 90주년 맞이 Y가족이야기
- 16 월간을 통해 본 Y가 주목한 사회
- 18 조명 : Y가 만난 Y사람들 ● 제10회 한국여성지도자 수상자
- 22 제1차 YWCA 평화포럼 ● YWCA 평화운동은 무엇인가? | 연합회 평화나눔팀
- 24 4월 월례아침기도회 ● 십자가로 가까이 | 주선애
- 25 고(故) 문태임 선생님을 추모하며
- 26 연합회 소식
- 27 회원YWCA 소식

제489권 제3호 통권 489호 2012년 4월 30일 발행(등록번호 라-746호) 발행 한국YWCA연합회 편집인 유성희 편집장 차경애 편집위원 김진형·백수경·윤혜원·이경순·이은영 편집 박은실·정서연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1가 1-3 한국YWCA연합회 전화 02-774-9703 팩스 02-774-9724 http://www.ywca.or.kr 편집디자인 (주)세이미디어(02-730-0746) 구독신청안내 구독신청료 1만 원(1년분)을 내시면 맥으로 보내드립니다. 농협 386-17-000052(한국YWCA연합회) 송금 후에는 연합회 사무실로 입금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성의 소리로 크게 외쳤던 한국YWCA의 설립목적과 정신을 생각할 때마다 숙연한 마음으로 몸 매무새를 가다듬게 됩니다. 그리고 90년이 지난 지금, 존경하는 Y선배님들은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창립 90주년을 맞은 Y회원들의 순례여정에 꼭 필요한 격려와 훈계,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그립습니다.

세 분 선배님이 눈물로 뿌린 Y 씨앗이 싹트고 잘 자라 꽃피고 열매 맺히도록 많은 선배님들의 수고와 희생이 이어졌습니다. 그 거룩한 목적과 희생 위에 축복의 햇빛과 은혜의 단비를 필요할 때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이 꽃향기로 꼭 필요한 변화의 바람도 일으켰고, 이 열매로 힘없는 이웃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건설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한 한국Y 90년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History is His story) 아름다운과 고귀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역사는 간직함으로 그 빛이 더하며, 고귀한 역사는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정말 멋있게 성숙한 한국YWCA 90살 생일잔치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를 돌아보는 진솔한 성찰과 함께 ‘지금부터’를 시작하는 새로운 비전과 소망, 그리고 그 비전실현을 위한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직한 자기성찰과 미래 사회를 예견하는 정확한 지식으로 ‘지금부터’를 준비하는 지혜와 결단이 한국Y의 100살, 180살 모습을 결정짓게 됩니다.

여성의 지위와 권익에 대한 개념조차 희박했던 시대에 시작된 Y 비전과 Y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신앙의 결단이 여성지도자시대를 사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어떻게 재조명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연구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극심한 이기주의와 성과주의, 물질중심의 생명경시 문화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용기 있는 지혜와 결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은 구호가 아닙니다.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Y회원들의 결단 이요, 헌신과 희생의 실천적 삶을 살겠다는 기독교인들의 고백이며 선포입니다. 이런 하늘의 부르심과 이웃의 요구에 답해야 하는 책임 앞에, 부끄럽고 안타깝지만 반드시 새로워져야 할 우리의 자화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첫사랑의 회복, Y설립 목적과 비전을 잃지 않는 지혜, 그리고 생명의 영으로 채움 받은 생명살림이, 기독교의 철저하게 헌신된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의의 강물 깊이 흐르고, 평화의 노래 멀리 퍼지는 나라, 돌봄과 나눔이 일상적인 삶의 실천가치가 되는 건강한 사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땅의 빛과 소금됨으로만 존재 이유와 가치가 설명되는 한국Y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역사적인 책임을 다 할 것을 겸손하게 결단하며, 재건된 북한 Y가족들과 함께 감사노래 부르는 100살 Y를 향한 힘찬 순례의 새 걸음을 뚫은 무릎과 뜨거운 눈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설립 목적과 비전을 잃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역사는 간직함으로 그 빛이 더하며, 자랑스러운 역사는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한국YWCA 90년 역사는 이 땅에 구원역사를 펼쳐 가신 하나님의 이야기이기에 그 빛이 더욱 찬란하고 생명력으로 넘칩니다. 모든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History is a His story’

# 기독교와 YWCA

글 | 최만자(여성신학자, 연합회 아카데미 위원)

한국YWCA의 정체성인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어떤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야기 하고자 한다.



○ YWCA농촌계몽운동

## 01 기독교는 YWCA의 정체성이고 에큐메니칼 신학은 그 내용이다

기독교는 YWCA의 정체성 자체이며 19세기에 퍼져나간 기독교 에큐메니칼 신학은 바로 그 정체성의 구체적 내용이다. 그것은 세계YWCA가 19세기 기독교 사회복음주의 운동의 열매로 생겨난 단체이며, 이런 사회운동들의 연합으로 기독교 에큐메니칼 운동이 결성되었기 때문이다. 19세기 인류사회는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달을 이루면서 반종교적이며 사회주의적 의식의 확장으로 급격한 사회변동이 일어났었다. 그러나 기존의 기독교 교회와 신학이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한 인간 생활 양상의 변화와 사회변동에 대응하지 못하고 단순히 회개와 내세만을 강조하며 무능하고 무의미한 종교로 전락해가고 있었다. 이렇게 시대상황에 무능한 정통신학과 제도교회에 대한 비판과 도전으로 나타난 것이 에큐메니칼 신학이었고, 세계 YMCA와 세계YWCA는 복음주의적 열정이 사회의식과 결합되어 결성된 기독교 에큐메니칼 사회운동단체이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그 기독교의 출발과 내용을 '생활 속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믿음과 '모든 기독교 운동체들의 연합 활동의 추구'를 주된 정신으로 하였다. 에큐메니칼이란 희랍어 '오이쿠메네'란 어원에서 나온 말로 '하나님의 온 세계',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이라는 의미인데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며, 사회의식과 결합된 기독교 신앙운동을 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한다는 뜻을 가진다. 에큐메니칼 신학은 사회의 구조적인 악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불의한 현상들의 근원적 요인 극복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인의 사명이라 생각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며 하나님이 지금 이 삶의 영역 속에서 일하고 계시며,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역사 안에 일하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신앙생활을 말한다. 즉 신앙과 세속의 이원화를 넘어서는 기독교 사회운동의 신학으로 19세기 출현, 확장된 기독교 사회운동 단체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었고 YWCA도 이 뿌리를 가지고 있다. 1855년 영국에서 창립된 세계Y는 신앙과 사회의식을 일치시키는 신학의 정신 위에서 부녀자들의 실생활 문제를 돕는 일을 신앙의 실천으로 생각하여 각 계층의 젊은 여성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살게하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당시 도시로 몰려드는 수많은 농촌여성(저소득 근로여성)을 위한 숙소를 제공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깊은 신앙의 열정으로 여성들의 다양한 문제와 요구들을 구체적으로 돕고 봉사하는 프로그램들(숙소, 건강, 체육과 오락, 심리상담, 민주시민 자질 향상, 교육, 자원 지도자 양성 등등)을 전개하였다. 이런 운동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으며 당시 구미교회들의 세계선교의 팽창과 더불어 국제적 여성 기독교운동으로 발전하였으며 1894년 세계 YWCA라는 국제기구를 조직하여 세계로 확장되었다.


## 02 한국YWCA와 기독교

한국YWCA는 1922년 기독교 여성단체로 창립되었다. 한국Y 창립의 주역들(김필례, 김활란, 유각경)이 모두 신실한 기독교 신앙의 여성 지도자들로서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여성사회운동을 지향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Y가 세계Y에 가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한국Y는 기독교 에큐메니칼 신학의 근거 위에 서게 되었다. 사실은 세계Y에 가입하기 이전, 그 창립의 준비과정에서 1922년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북경 청화대학에서 개최되었던 세계기독교학생연맹(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대회에 김필례, 김활란 두 창설자가 참가하여 일본Y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한국Y 창립을 위한 교섭을 벌였는데, 에큐메니칼 운동의 진원지인 WSCF 대회에의 참가는 기독교 에큐메니칼 운동의 진수를 경험하게 된 기회가 되었다고 본다.

1895년 8월 스웨덴의 바스테나에서 대학생 기독교 운동을 연합체로 조직한 WSCF를 탄생시켰고, 에큐메니칼 신학 위에 학생운동을 정립하였다. 1910년 에딘바라대회에서 20세기는 아시아의 선교시대라는 방향을 제시했고, 김활란, 김필례 두 분이 참석했던 1922년 북경대회에서는 선교를 기독교 전도의 개념에서 사회개선, 개혁을 위한 사회운동의 심화로 전환시켜 에큐메니칼 운동을 강조하였다. 더욱이 민족간의 투쟁, 인종 문제, 민주화 문제, 토착종교와의 문제 등 국제간, 인종간, 그리고 정치적, 문화적 문제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입장과 신앙표현을 고민하였다. 이런 고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칙'을 정립하고 전쟁을 해결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한 항쟁, 선교지를 섬기고 봉사하는 선교,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상의 화해의 직분수행 등의 방향을 제시하여 시대와 역사의 상황과 신앙과의 연결을 노력했다. 당시 대부분의 기독교 지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한국YWCA 운동의 지도력들이 Y운동을 민족 개하나 구국운동의 애국운동과 연결시켰던 것이 사실이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에큐메니칼적 신앙은 이와 일치하고 있다.

## 03 한국YWCA 기독교 운동의 현주소

초기의 한국Y는 에큐메니칼 운동정신에 따른 여성생활과 사회개선운동에 주력하였다. 기독교 신앙과 사회변화를 일치시킨 신앙의식으로 1925년 사회문제부를 조직하고 당시의 사회문제 개선에 주력하였다. 금주 금연, 조혼폐지, 공창폐지, 물산장려 등의 운동을 전개하였고 특히 문맹퇴치, 농촌운동 등을 하면서 사회개선과 애국을 위한 헌신이 그 시대 신앙인의 사명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해방 이후 곧장 닦쳐온 전쟁 속에서 난민을 위한 급식운동, 전쟁 고아, 미망인 돌보기, 무의탁 소녀들의 직업훈련 등 돌봄과 섬김과 나눔의 활동전개로 시대적 소명을 다하려 노력했다. 여성들의 법적·제도적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들과 1960년대 이르러 국가재건을 위한 노력과 참여를 극대화하였다. 1962년 전국대회에서 'Y란 복음운동, 여성운동, 세계평화운동, 인류공생의 복지운동, 사회악과 싸우는 사회운동'이라 하여 에큐메니칼적 기독교 운동임을 다시 일깨운다.

1970년대 이후 대학Y 구조변경으로 WSCF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한국 기독교자교수협의회와의 연결도 없어졌다. 세계Y도 그러하거나 지방회원(성인) 활동은 주로 복지사업에 있고 대학Y 활동은 사회운동적 성격이 강한 특성을 갖는다. 그런데 대학Y가 약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사회운동적 성격도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한국교회의 주 신앙유형이 정교분리적이며, 복음주의적 열정의 신앙행태가 지배적인 것의 영향 또한 크다. 그럼에도 Y는 봉사와 섬김의 사회활동에 지속적이며 헌신적이다. 그런데 한국Y는 사회적 관심은 크지만 사회구조적 대응에 미흡한 면이 있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Y가 어떻게 그 신앙의 뿌리와 복음주의적 열정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것인가를 찾는 일이다. 아마도 그 기준은 '사람을 살리는 일(생명)'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일'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일', 곧 Y 목적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며 일할 때 그 균형을 찾을 수 있고, 진정한 기독교 운동을 전개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지금 한국교회는 19세기보다 더 왜곡되어진 신앙행태를 가졌기에 조화를 이룬 Y가 대안적 교회상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사항을 제시해 본다. 

# 한국YWCA 창립 90주년 기념식 및 제1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한국YWCA 90주년은 다가올 100주년을 준비하는 첫 해로 10년 뒤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를 꿈꾸며 실천을 시작하는 해다. 지난 4월 20일 오후 2시 서울YWCA 대강당에서 한국YWCA 창립 90주년 기념식 및 제1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이 열렸다.

한국YWCA 창립 90주년 감사예배로 명예연합위원을 비롯한 원로 자원지도자와 전·현직 실무자, 전국 회원Y 대표, 일본 YWCA 회장, 부회장, 여성가족부장관 등 내·외빈 300여 명과 함께 100주년으로의 첫 걸음을 시작하였다. 성광감리교회 찬양단의 찬양에 이어 YWCA 90년에 이르기까지 동행해주시고 이 땅에서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 말씀선포에서 박종화 목사(경동교회)가 "생명의 주님을 증언하라"는 주제로 지난 90년 동안 허락해 주셨던 "C"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사회 속에서 YWCA가 받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말씀하였다. 새 역사 창조에 순례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3시부터 시작된 한국YWCA 창립 90주년 기념식에서 차경애 연합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한국사회 여성지도력을 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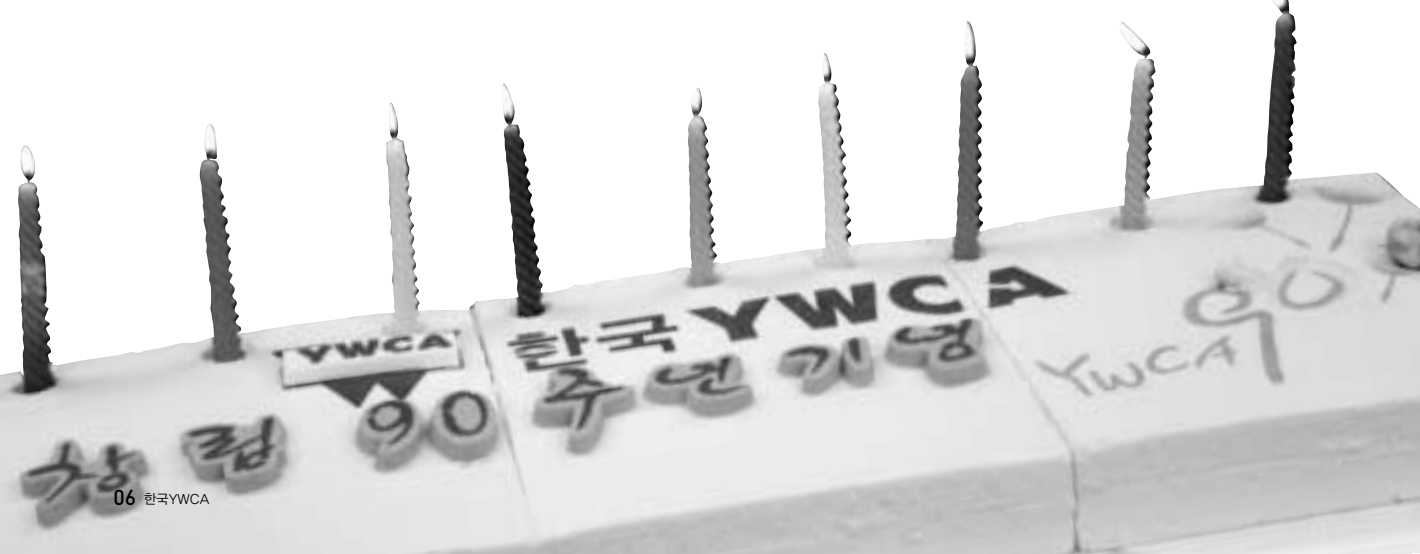
생명과 정의, 평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기름진 토양을 만들기 위한 걸음을 이어가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김규래 여성가족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90년간 이룬 성과의 토대 위에서 앞으로 더 큰 지도력과 사회적 영향력으로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YWCA 창립 90주년 기념영상을 통해 지난 90년간의 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여성직업 및 직종개발, 호주제 폐지를 위한 가족법 개정운동, 생명운동, 평화통일 운동 등 한국사회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이 펼쳐졌다. 또한 세계YWCA 회장 데보라 토마스, 일본YWCA 나오코 마타노 회장, 이희호 여사 등의 90주년 축하 메시지를 통해 지난 90년간 한국YWCA의 노력이 여성운동사의 커다란 물결을 만들어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YWCA 90년의 역사는 한국사회의 여성지도력을 키워온 역사와도 같다. 그래서 한국YWCA 창립 90주년 기념식과

제1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이 같은 날 축하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YWCA는 2003년부터 한국씨티은행의 후원으로 한국여성지도자상을 제정하여 나눔과 헌신, 진취적인 도전으로 여성지도력의 본이 되는 여성들을 시상하고 격려하고 있다. 제1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 수상자는 여성의 지위와 인권향상에 기여한 여성학자이자 운동가인 이효재 경신사회복지연구소 소장이며 젊은지도자상은 반전평화활동과 평화의 가치를 전하는 평화운동가 임영신 이매진피스 대표, 특별상은 탈북자 강제복송 저지활동에 힘쓴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다.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10년 간 한국여성지도자상을 매개로 훌륭한 여성지도자들을 알리고 다음 세대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한 데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여성지도력이 우리사회를 발전시킬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1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은 지난 10년 간 한국의 여성지도자상(像)의 변천을 돌아보며, 새 시대를 선도할 여성지도력의 상(像)을 새롭게 정립하는 자리가 되었다. 장애인의 날이기도 한 당일 시각장애인 예술단체 한빛예술단 체리티중창단이 한국YWCA 창립 90주년을 축하하며 감동의 물결을 만들었다. 어둠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 이들의 하모니가 더 감동으로 다가온 것은, 한국YWCA가 어둠과 장애 속에서도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달려온 헌신의 모습과 겹쳐졌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YWCA 90년을 대표하여 아홉 개의 촛불을 켜고 한국YWCA 창립 90주년 생일을 축하하였다. 유성희 사무총장은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구석구석의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 YWCA는 촛불을 끄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며 YWCA가 어둠 속에서 빛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손길이 될 것을 천명하였다. 한국YWCA 창립 90주년을 축하하며 참석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옆 사람의 손을 잡기 시작했다. 한국YWCA가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손에 손을 맞잡은 우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손으로 전해진 온기와 사랑, 지지와 격려가 한국YWCA의 힘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YWCA 100년의 역사를 이어갈 힘의 원천이다.

## 한국YWCA 창립 90주년 기념사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

오늘은 한국YWCA가 창립 90주년을 맞는 뜻 깊은 날입니다. 한국YWCA의 52개 회원Y 10만 회원들은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창립 90주년을 맞이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며 축복'이라 생각하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주시면서 오늘의 YWCA가 있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1922년 김필래, 김활란, 유각경 세 분의 여성선각자를 통해, 일제치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실의에 빠져있는 여성들을 일깨워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고, 여성들이 바르게 설 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한 비전으로 YWCA를 창설하게 하셨습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Y는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과 소명의식으로 세상을 살리는 기독교여성운동체로서 한 몫을 담당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립 90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90주년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YWCA에 있어 90년의 의미는 단순히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Y의 처음 정신을 회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대를 앞서는 새로운 비전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0주년을 "YWCA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걸음"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100주년을 맞이할 10년의 기간 동안 생명의 세상, 정의와 평화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여성지도력을 키워며 생명과 정의, 평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기름진 토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느리더라도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이 순례의 길에 함께 해주실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100년을 향해 가는 YWCA 순례의 여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물론,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90<sup>th</sup> ANNIVERSARY



●대표기도 주선에 연합위원 ●말씀선포 박종화 목사 ●축도 방지일 목사 ●축사 김금래 장관 ●격려사 하영구 행정



●일본Y 회장·부회장, 연합회 이사·위원

## 한국YWCA 창립 90주년 기념식 및 제1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감사예배



●기념사 차경애 회장

●제 1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수상자



●이은화 님  
(대상 이효재 선생님 대리수상)



●특별상 박선영 님



●젊은지도자상 임영신 님



●말씀봉독 최선화 양



●축하잔치



●연합회 회장단·실무자



●일본Y 회장·부회장



●초청회원 베트남이주여성들



●축가 헌빛예술단 체리티중창단



세계YWCA 회장  
**데보라 토마스**  
**Deborah Thomas**

여러분께 90주년 축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90주년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어떻게 하나님 주신 능력을 사용하여 여러 생명과 지역공동체를 움직이고 영향을 주어 변화시켰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자, 한국의 차세대 여성과 소녀들을 위해 어떠한 유산을 남겼는지를 돌아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국YWCA의 90주년은 축하하고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총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한국YWCA의 훌륭한 모든 운동들이 가능할 수 있게 한 기금에 감사하며, 한국YWCA가 해온,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 및 요구를 위한 이타적인 헌신과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자 하는 지침 없는 노력, 그들의 엄청난 내적 용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런 좋은 일들이 90년 동안이나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해온, 자원지도자들과 실무자들, 회원들과 협력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해 오신 좋은 일을 계속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성공과 업적을 축하하며 차세대 여성과 소녀들을 위해 계속하여 많은 업적을 남겨주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속 깊이 축하를 드리며, 행복한 90주년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YWCA 사무총장  
**나랏자이 고클본즈반다**  
**Nyradzayi Gumbonzvanda**

한국YWCA의 90주년을 축하합니다! 회장님들, 자원지도자들 그리고 사무총장들을 비롯한 우리의 실무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1922년부터, 한국YWCA의 뛰어난 여성 지도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지역민 요청에 응답하여 왔습니다. 한국YWCA는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여러 서비스들을 제공하며, 북한의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 활동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평화와 정의구현을 위해 힘써온 이러한 노력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로 이어져왔습니다. 다시 한 번 90주년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을 보냅니다.



일본YWCA 회장  
**나오코 마타노**  
**Naoko Matano**

한국YWCA의 9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YWCA와 일본YWCA는 역사적으로 늘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일본YWCA는 1910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식민지정책으로 인해 많은 한국인들이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는 점을 통감하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대지진 후 이어진 쓰나미와 핵발전소 사건 당시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우정 어린 따뜻한 지지와 도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빌며, 한국에서 펼치시는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운동에 성공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이희호**

한국YWCA 창립 9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YWCA는 힘들고 고난했던 1922년, '식민지'와 '여성'이라는 이중 굴레에서 억압받던 조선 여성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야학과 직업 강습을 통해 민족의 독립과 여성들의 자아인식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저도 1922년 생이니가 한국YWCA와 같은 연배입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여성들을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젊은 시절부터 여성 차별 철폐 운동에 참여했고, 미국 유학을 다녀온 후에는 한국YWCA연합회 총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한국YWCA가 20년대부터 시작한 직업 훈련은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며 여성들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여성 인권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 외에도 가족법 개정, 청소년 운동, 생명 운동과 최근의 북한어린이돕기 운동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온갖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운동을 꾸준히 전개 해왔습니다. 창립 9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90년의 성과들을 돌아보고 100주년을 향한 비전과 소망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한국YWCA 창립 90주년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한국YMCA연맹 이사장  
**차선각**



한국YWCA 9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국제 청년운동과 에큐메니컬운동에 기반하여 설립된 한국YWCA는 기독교 신앙과 민족정신에 바탕한 여성들이 용기 있게 결합하여 역사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특히 여성대중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왔으며, 이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는 여성들을 키워냄으로써 여성 지도력 개발에 힘써 왔습니다. 지금까지 용기를 내왔던 것처럼, 여성들의 선봉에서 한국여성 중심에 YWCA가 우뚝 서기를 기원합니다.

퀵YWCA 고문총무  
**홍인숙**



한국YWCA 9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YWCA에 첫발을 내딛은 것이 45주년이 되는 1967년이었는데, 벌써 45년이 지났습니다. 한국YWCA가 우리 선배들이 걸어가셨던 사랑과 봉사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바라며, 세계YWCA 중에서도 믿음으로 으뜸가고, 사랑으로 으뜸가는 단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한국 YWCA 90<sup>th</sup> ANNIVERSARY

**서울YWCA**

사랑과 헌신속에 이루어진 90년 YWCA, 더욱 힘찬 발걸음으로 이땅에 정의와 평화의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양YWCA**

한국YWCA 창립 90주년! YWCA가 일으킨 생명의 바람이 이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바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100주년을 기대합니다. 화이팅!

**인천YWCA**

한국YWCA 창립 90주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100년을 향해 가는 길에 주님께서 주신 가치를 실현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선한 청지기의 사명자로 우뚝 서시길 기원합니다.

**세종YWCA**

한국YWCA 100년을 향한 순례자들의 멋진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동역자들에게 행복한 기운을 듬뿍 담아 빵 터트립니다!

**남원YWCA**

벌써 YWCA가 90주년이 되었네요! 큰 감격이 밀려옵니다. 이제 10년 후에는 100주년이 되는데 하나님의 큰 사랑과 비전을 가지고 더욱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광주YWCA**

한국YWCA 9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긴 세월의 깊이만큼 평화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Y의 따뜻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전해져 더 많은 이웃들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제주YWCA**

한국의 YWCA를 사랑하시며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셔서 한국YWCA 100주년을 기대할 수 있는 미래가 있습니다. 한국YWCA 창립 9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의정부YWCA**

이 땅에 정의와 평화의 흙씨를 뿌린 지 어언 90년! 한국YWCA 창립 90주년을 축하합니다. 늘 열려있는 자세로 시대를 품고, 더 연약한 곳까지 평화의 손을 내미는 한국YWCA가 되길 소망합니다.

**원주YWCA**

한국YWCA 창립 9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선배님들의 노력과 열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YWCA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우리 함께 걸어가요!

**충주YWCA**

새봄에 활짝 핀 꽃들처럼 한국YWCA 100주년을 향한 첫 걸음에 회원들의 마음하나 하나가 꽃송이가 되어 함께 할 것입니다. 선배들의 희생과 열정, 뜨거운 눈물로 만들어진 90년의 한국YWCA 역사, 우리 모두를 축하합니다!

**제천YWCA**

한국YWCA는 창립 이래 민족과 여성을 위해 믿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해왔습니다. 90주년을 맞는 한국YWCA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더 많은 여성들의 아픔을 보듬고, 이시대를 위해 헌신하는 YWCA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전YWCA**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90년을 달려온 한국YWCA,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00년까지 더욱 더 도약하는 한국YWCA가 되길 기도합니다.

**포항YWCA**

소외된 형제와 함께 한 한국YWCA 90년! 그들과 함께 백 년을 향한 발걸음의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부산YWCA**

한국YWCA 창립 90주년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젊음을 간직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 번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지나온 90년 세월의 발자취와 찬란한 100년을 향한 도약의 발걸음이 모두 하나님께 집중되길 바랍니다. 한국YWCA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해YWCA**

한국YWCA에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지난 90년의 발전과 성장을 김해YWCA 회원 모두의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100주년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더욱 앞서가는 YWCA가 되기를...

**진주YWCA**

한국YWCA 90주년을 축하합니다. 오랜 시간 세상과 동행하였습니다. YWCA의 사랑이 민들레 흙씨로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한국YWCA 활동가들이여, YWCA 90년이라는 원동력을 기반으로 세계 리더로 뻗어나가시길!

**여수YWCA**

하루하루가 모여 인생이 되듯이 우리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Y의 역사를 이루어 90주년이 되었습니다. YWCA의 헌신이 열매 맺고 향기나는 꽃을 피울 때까지 우리 모두 파이팅!!

# 한국 YWCA 90<sup>th</sup> ANNIVERSARY



순천YWCA 김순영 증경회장은 제36회 전국대회에서 50년 봉사상을 수상한 가장 오랜 회원Y 지도력이다. 1976년부터 79년까지, 그리고 1984년부터 87년까지 두 번에 걸쳐 제11대, 13대 순천Y 회장을 지냈다. 그는 Y와 함께한 삶을 즐거움의 연속이었다고 회고한다.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더불어 변화를 이루어가는 삶이야말로 기쁨입니다. 봉사는 계산이 될 수 없습니다.” 김 증경회장은 90년의 세월 동안 나라와 지역사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온 YWCA가 독수리처럼 비상하여 100주년을 향해 큰 꿈을 펼쳐갈 것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봉사의 기쁨을 너무도 잘 아는 그이기에 오늘도 김 증경회장은 Y에 헌신하고 있다.

### 오랜 회원Y 지도력

순천YWCA 증경회장  
김순영

### YWCA 남성 회우

목포YWCA 남성 회우(목포정명여고 교사)  
박형중



목포YWCA 남성 회우인 박형중 선생님은 목포Y 사무총장님의 권유로 정명여고 Y-틴을 담당하게 되었고, Y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평생회원이 되어 협력하고 있다. 현재 Y-틴 부원들과 Y창립기념일예배, 자원봉사, 청소년문화축제, 아나바다장터, 캠페인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 선생님은 “Y-틴 활동을 하면서 나눔과 베품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맑고 깨끗한 소녀들을 만나기에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됩니다.”라고 말한다. 또한 한국YWCA가 생명을 나누고 살리는 일에 매진하여 세계 속에 비상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목포Y-틴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다고 고백하는 박 선생님이 계시기에 Y-틴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 YWCA 어린이 회원

충주YWCA 어린이 회원  
(충주예성초등학교 1학년)

박준서

충주YWCA 어린이 회원인 박준서 어린이는 YWCA에서 하는 유소년문화체험에 다니는 형이 부러워 같이 다니게 되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충주YWCA 유소년 문화체험프로그램에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 준서 어린이는 프로그램 중 가장 즐겁고 재미있을 때는 서울대공원에 갔을 때였다. 그곳에서 형과 누나들과 같이 기차타고 바람을 맞으며 가는데 시원해서 좋았고 동물원에 갔더니 정말 키가 큰 기린과 사자, 곰이 있어 놀라서 소리도 질렀단다. 돌고래 쇼도 재미있었는데 엄마가 기뻐하게 돌고래처럼 쇼를 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다고. 준서의 눈에 비친 YWCA는 즐거운 곳, 놀러가는 곳, 신기한 나라에 데려다주는 곳이라고 한다.



### YWCA 최연소 실무자

원주YWCA 간사  
이하나

올해 스물 세 살인 원주YWCA 이하나 간사. 2011년 같은 교회 권사님이자 원주YWCA 이사님의 권유로 Y활동가로 근무하게 된 그녀. 현재 원주Y에서 회계와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녀는 Y를 통해 여성에 대하여 더 알게 되고 여성과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이 삶에 큰 양분이 된다고 말한다. 젊은 실무자의 눈에 비친 YWCA는 예수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젊은 여성들이 나라와 지역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녀가 YWCA에 거는 기대는 젊은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발전을 도모하여, 세계의 Y 가운데에서도 우뚝 서는 Y가 되는 것이다. 이 간사는 100주년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한국YWCA가 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깨어있는 젊은 지도력이 있기에 기대와 소망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

### 젊은 지도력

Y-틴 전국협의회장  
최선화

학교 내 최고 인기 동아리 ‘Y-틴’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입단하게 된 최선화 Y-틴 전국협의회장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환경 운동에 열심을 다하고,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동아리 회원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청소년 상담가로서의 꿈을 키워온 최선화양은 Y-틴 전국협의회장으로서 돌봄과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전국 4천여 명의 청소년회원들을 이끌고 있다. 그녀는 90주년을 맞으며, YWCA에 젊은 회원이 넘쳐나고 모든 세대가 적극 참여하는 Y가 되기를 소망했다.



# 한국 YWCA 90<sup>th</sup> ANNIVERSARY

### 생활 속 기독교 신앙 강조

『Y.W.C.A.』, 1957년 2월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가 가진 신앙이 그의 생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기독교 신앙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요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속죄의 은총을 경험하는 일이고 둘째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생활방법을 나의 생활방법으로 삼아 사랑과 봉사와 희생의 정신으로 산다는 일을 말함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의의 통치로 말미암은 약속과 허락을 인하여 현재의 역경 속에서도 염려없이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경일, 『기독교 신앙의 중요성』 중

## 월간 『한국YWCA』를 통해서 본 Y가 주목한 사회

### 여성해방운동을 향하여

『한국YWCA』, 1989년 11월호

“80년대 여성운동이 70년대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급성장했는데, 그 모체는 80년 광주민중항쟁의 체험, 6·10평화대행진, 대통령 직선제를 획득한 민주화투쟁과정의 체험과 무관할 수 없다. 즉 노동운동에 참여한 여성노동자들,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민주 여성들은 그 사회변혁 운동에 여전히 여성의 억압과 착취가 또 하나의 남성지배 구조로 남아 있다는 자각에 불을 당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변혁 운동은 80년대 여성운동의 성장에 긴밀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으며 90년대 여성해방 운동의 발전 양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여성해방운동은 남성해방운동이며 이 지상의 유일한 파트너인 남녀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실현하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고정희, 『여성민중해방 운동의 지평을 열다』 중

### 바른삶 실천운동

『한국YWCA』, 1991년 3월호

“연합회가 추진하고 있는 ‘바른삶 실천운동’에 동참한 이래 내 가방 속에는 늘 팜플렛이 수북하였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과연 바른삶이 얼마나 뿌리내려질까를 생각하면 너무도 힘든 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랑의 공동체, 절제와 분수에 맞는 생활, 우리 농산물 먹기, 퇴폐·향락추방 등등 지금의 우리 모두에게 절실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의 거짓과 부패는 극에 달한 느낌이다. 하지만 바른삶을 펼쳐야 할 우리사회의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지만 작은 힘이 하나 둘 모아진다면 언젠가 이 운동이 빛을 발하리라 믿기에 만나는 사람마다 반가울 따름이다.”

주선애, 『바른삶 실천운동자료-실천사례』 중

90th ANNIVERSARY



### 여성의식계몽운동 강화

『Y.W.C.A.』, 1960년 7월호

모든 면에 있어서 새롭고 진실됨을 요구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YWCA의 사명은 보다 중대함을 느낀다. 지난 날 우리 여성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는 동시에 현하 시국하에 우리 여성이 여성자신의 계몽을 위해서 다음의 내용을 가지고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 01 여성은 첩이 되지 말고 첩있는 사람에게는 지도자가 될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함. (여성의 인권을 유린 당하지 말자) 첩있는 사람에게 투표하지 말자.
- 02 경제재건을 돕기 위해 국산품을 사용하도록 계몽하는 동시에 정부에는 국산품의 질을 높이고 신용있는 물품을 만들어내도록 건의를 함. 이리하여 여성의 허영심을 버리고 사치생활에서 떠나도록 계몽함.

『프로그램부의 제안』 중

### 소외계층(근로여성) 복지 향상 주력

『한국YWCA』, 1974년 4월호

“근로여성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않은 채 해마다 점점 증가해 가고 있다. 국가의 공업화 정책에 따라 근로여성은 앞으로 점점 증가해 갈 것이다. 그것도 20대 미만의 여성들이. 누구도 돌봐주는 사람 없는 이들을 Y는 이 이상 소외시켜 버릴 수 없다.”

『YWCA의 관심-근로여성』 중

### 화해와 공존

『한국YWCA』, 2001년 1+2월호

“연합회는 통일의 당위성이나 정치적 상황보다는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기독교적 사랑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1998년 북한동포돕기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제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 라는 이야기는 ‘통일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 질문으로 바뀌어야 한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노력으로 통일의 당위성을 채워가야 할 때라고 본다. 우리가 애써 모아 지원하는 한 통의 분유, 한 벌의 내복은 통일된 땅, 통일된 한반도에서 살아갈 북한주민과 남한주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준비요, 통일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작은 준비라고 할 수 있겠다.”

최인숙, 『통일된 땅의 '나와 우리'를 위하여』 중

### 청년이 정의로운 ‘청정세상’

『한국YWCA』, 2011년 3월호

“YWCA는 올해 ‘정의’ 운동을 펼치고 있다. YWCA가 아이들의 재능을 찾아주고 한 인간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에서 정의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YWCA가 지난 역사 속에서 가난하고 천한 이들의 친구였던 예수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힘든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키워온 것처럼 청소년들이 각각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일깨워주는 것이 무한경쟁시대 한가운데 서있는 YWCA가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하는 길이 아닐지 생각해보자.”

연합회 청년운동팀, 『내 이름은 39등이 아니라 김철수다』 중



## 대상 이효재

이효재님은 한국 여성의 지위와 인권향상에 기여한 선구적인 여성학자이자 운동가로 한국여성운동의 대모다. 한국의 여성학 이론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호주제 폐지 운동, 정신대보상운동 등을 이끌며 한국 여성운동계의 흐름을 주도했다. 지금은 경남 진해에서 경신사회복지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의 여성과 가족의 문제를 연구하는 데 힘쓰는 한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기적의 도서관을 설립하였다. 행동하는 지식인, 식지 않는 열정으로 진취적으로 학문과 운동의 영역을 개척해 온 이효재님은 여성계의 큰 스승이다.

**Q** 선생님께서는 대학에서 학문을 가르치시면서, 호주제 폐지 운동, 정신대보상운동 등 직접 사회현장 속에 뛰어드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절박함이 있으셨는지요?

70년대에 학교에서 가족학과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자들이 졸업 후 혼인하고 나서 남편에게 종속되어 사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내가 볼 때 여성이 혼인을 하더라도, 독립적 주체로 혼자 살 자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 때 내가, 아이들 이 태어나서 엄마 성을 따르지 못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했었다. 그것이 호주제 폐지 운동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었다. 사회가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할 때인데도 여성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더라. 또 나는 정신대 활동을 열심히 하는 윤정옥 대표와 함께 활동했다. 각종 사료를 통해 정신대(위안부)의 만행이 드러났고 이를 국제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정신대 할머니들의 증언이 터져 나왔다. 할머니들의 증언을 듣는데 가슴이 떨리고 분노가 일었다. UN 등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이런 만행을 알렸다. 그 당시 다른 나라 여성들이 '왜 이제와서 이 문제를 밝히게 되었냐'고 묻더라.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되더라도 역사속에서 꼭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 제1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Q** 선생님께서는 교육문제에서도 어머니로서의 여성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자녀 교육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나는 엄마의 역할이 자녀교육에서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 엄마가 바뀌어야 자녀도 바뀐다. 사실 요즘의 교육열은 조선조부터 자식을 과거 시키려고 애썼던 어머니의 모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게 애썼던 이유는 그것이 신분상승의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그러한 관습이 이어져서 자식들을 명문대학에 보내려는 엄마들의 교육열은 신분상승과 연결된 것이다. 여성, 즉 엄마들이 이 문제를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자녀들의 인권과 인성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교육에서도 서로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Q**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약자입니다. 성차별, 성희롱 문제, 여성 비하 문제 등 여성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여성들이 어떠한 태도로 문제들을 해결해나가야겠습니까?

낭만적으로 여성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되고 지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최근에 장자연씨 사건, 직장여성들의 성희롱 사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가족문제도 심각하다. 엄마의 따뜻한 모성애의 강조 등 감정적으로 여성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본다. 가족을 위해 여성은 현모양처가 되어야 하는 모성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적으로 이분화된 역할구조를 극복해야 한다. 남성들도 동등한 책임을 같이 져야 하는데, 아직도 가정 내 현모양처를 미화시키는 것이 답답하다. 그래서 모성이데올로기를 감성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성적 성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효부열녀의 가치는 여성을 굴레에 씌운 것이다. 비인간적이고 여성의 인권을 스스로 짓밟는 것과 같다. 남자들의 권위는 그대로 떠받드는 이런 가부장적 모습을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Q** 선생님께서는 매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직도 통일이 되지 않은 것이 내 한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것에 대해 참 마음이

아파왔다. 그래서 여성들이 통일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연구를 많이 했었다. 70년대 '분단 사회학'이라는 말도 내세우면서, 그때 안기부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해서 '분단과 여성의 한'을 가지고 글을 써서 창비에 냈다. 여성의 성차별과 노동차별의 문제의 근원과 분단 문제가 맞닿아 있다고 보았다. 남북평화를 위해 대화를 해야 하는데 여성들부터라도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현 정부가 남북 평화 협상을 중단시킨 것을 제일 잘못된 것이라 본다. 북한은 고립된 상태에서 피해의식이 강해서 강대국들이 자기를 노린다고 생각하는데 남한까지 그렇게 적대적으로 나가면 서로 죽는 것이다. 억압하면 결국에는 죽게 된다. 우리가 같이 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YWCA가 상생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나는 아침저녁으로 남북이 화해하여 평화통일이 될 것을 위해 백번씩 기도한다.

**Q** 올해로 한국YWCA가 창립 90주년을 맞이하였고, 10년 후면 100주년을 맞이하는데, YWCA에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요?

YWCA의 역할 중 여성 지도자 양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식민지 시대부터 여성의 사회참여, 지도자양성을 YWCA가 활발히 해왔다. 근대여성을 키운 것, 직업여성을 양성한 것, 이런 것들이 한국의 근대화과정에 기여한 것이다. YWCA가 그동안 서민층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열심히 했고 기여를 했는데, 아직도 여성의 90%가 비정규직을 차지한다. 노동해방, 성해방을 70년대부터 부르짖었는데 아직도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일 임금이 싼 분야가 서비스 분야인데 대부분이 여성노동자들이다. 서비스 분야 업종은 일을 할수록 더 가난해지는데, 사회제도적으로 노동을 해도 빈곤화가 왜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서비스 분야의 빈곤화는 자본과 노동과의 관계지, 노동 자체는 천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신분제사회다. 그래서 육체노동은 천한 노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곧 여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성학과 YWCA와 같은 여성운동계에서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 나는 이런 것이 답답하다. 여성들이 지성과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



임영신님은 우리 사회와 삶에서 '평화'의 문제를 화두로 삼아 2003년 이라크 반전평화팀 활동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와 소통하며 평화의 가치를 전하고 있는 평화운동가이다. 오지와 분쟁지역 등으로 국경과 경계를 넘는 만남을 가졌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여행의 가치를 전파하였다. 최근에는 경기도 화성에서 페어라이프센터 설립하여 '평화'의 가치를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며 평화활동가들의 단체인 이매진피스의 공동대표로서 평화행동, 평화교육, 평화여행을 위한 새로운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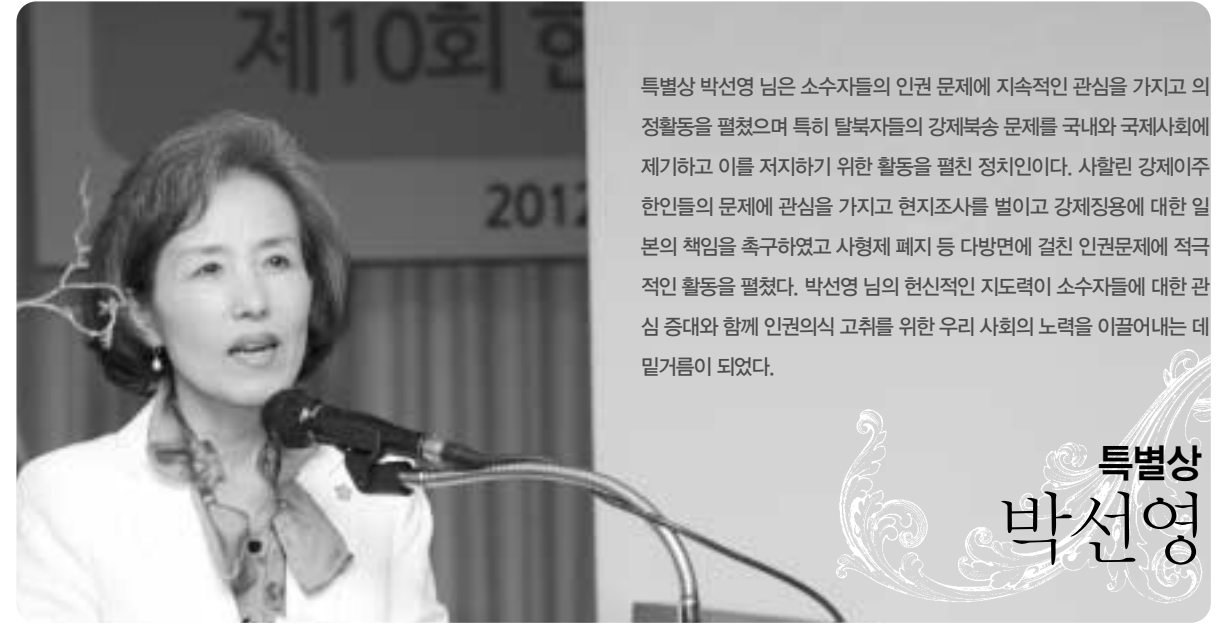
## 젊은지도자상 임영신

**Q** 선생님께서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간사를 시작으로 10여년간 시민운동현장에서 일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신지요? 시민운동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배운 것은 모두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고 귀한 경험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제 마음 속에 아주 오래도록 남아 있는 만남이었다면, 정신대 할머니들을 만나 뵈었던 시간들입니다. 할머니들의 아픔과 상처는 권력 구조 속에서 묻힐 수밖에 없지만, 한분 한분의 용기 있는 증언들이 거대한 권력 구조와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보잘 것 없어 보이는 개인의 증언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의 힘을 믿습니다.

**Q** 공정여행가 임영신을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여행'이란 무엇인가요? 여행은 단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 어떤 마을에 다다를 때, 우리와 잇닿아 있는 사람, 자연, 마을들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는 거죠.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 자연, 문화를 친구의 마음으로 살피며 여행하는 것, 그런 새로운 여행이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평화운동가이신 선생님에게 '평화'란 무엇입니까? 평화활동의 출발은 일촉즉발의 위기 속 2003년 전쟁을 앞둔 이라크였습니다. 내가 이라크에 가서 배운 가장 큰 것이 있다면 평화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차별과 분쟁, 억압 속에서 제가 마주한 평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며 소통이었습니다.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평화입니다.

**Q** 제1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젊은지도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귀한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늘에서 빛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그늘을 찾아가고 경계를 찾아가는 일을 못했을 것입니다. 길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희망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이상을, 부끄러운 나를 돌아보게 하고 앞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라는 명어로 알고 살아갔습니다.




특별상 박선영님은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탈북자들의 강제복송 문제를 국내외 국제사회에 제기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펼친 정치인이다. 사할린 강제이주 한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현지조사를 벌이고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촉구하였고 사형제 폐지 등 다방면에 걸친 인권문제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박선영님의 헌신적인 지도력이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 특별상 박선영

**Q** 얼마전 탈북자 강제 복송 저지를 위한 단식과 UN 인권 이사회에 다녀오셨습니다.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전공이 헌법인데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헌법 제1조는 유명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2조에 재외국민 보호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학자적 양심으로 처음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학술적인 활동을 한 것이고 국회의원이 돼서는 보다 실질적인 활동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북자도 재외동포입니다. 헌법상 탈북자도 국민인데 행정부 입법부는 아무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Q** 의원님께서 그동안 아무도 문제시 하지 않았던 사할린 강제이주자들의 인권 보호 운동에도 앞장서시며 '사할린의 꽃'이라 불리시기도 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사할린 강제이주자는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나는 이분들을 다 '역사의 조난자'라고 생각합니다. 피폐하고, 황폐했던 우리 역사에서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이분들을 대한민국이 결코 버려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국회에서 역사의 조난자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는데 나라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잊지 말자,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 물망초 배지 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당신들을 구출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Q** 여성정치인으로서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헌신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 마음은 약한 자, 소외된 자, 힘없는 자에게 향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가장 권리 침해가 많을 수밖에 없는 분들, 여성 중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며느리. 인권차원에서 국민 대표라면 마땅히 앞장서서 이분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외받고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제1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특별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이런 상을 받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가장 가려지고, 버려지고, 응달진 곳에서 눈물짓는 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자와 교수생활을 했고, 정치권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음을 느낍니다. 암흑기였던 90년 전에 햇불을 들었던 Y가 90년이 되었습니다. 100주년에는 이 땅에 평화와 정의의 불길이 타오르고,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 YWCA 평화운동은 무엇인가?

정리 | 연합회 평화나눔팀

지난 3월 29일, 연합회 강당에서 제1차 YWCA 평화포럼이 열렸다. 2012년은 'YWCA 평화의 해'로 연합회는 평화운동을 주력하여 전개하고 있다. 평화포럼은 YWCA 평화운동의 목적(이론적 근거 포함), 영역(구체적인 대응사안 포함), 운동방식에 관한 의견을 모아내고 이를 확정하여 YWCA내·외부와 소통하며, YWCA 평화운동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최한다.



1

제1차 평화포럼은 'YWCA 평화운동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평화포럼 포문을 열었다.

첫 발제자 정지석 목사(NCCK 평화협정위원회 위원)는 '우리는 왜 평화운동을 해야 하는가? - 신학적·시민 운동론적 근거'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인도주의적 사랑이 기독교 신앙의 기반이자 크리스천 평화운동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영적 평화를 추구하는 크리스천의 운동은 육의 무기가 아닌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함으로 싸우는 평화운동이다. 예수의 평화는 이해와 관용, 용서와 존중, 화해와 구호, 돌봄과 치유의 평화이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이중 시민권자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지키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과제로 남아있다. 오늘날 평화는 총체적 위기에 도래했으며, 시민의 평화의식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시민 참여 민주주의의 발전은 시민 평화운동의 주요한 요건이다. 그렇다면 크리스천 시민 평화운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정 목사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평화캠페인,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평화운동 개발, 평화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평화순례, 평화교육, 평화구호 봉사활동 영역 넓히기, 전자 공간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기, 비폭력 생활 문화 가치 증진, 시대적 평화문제 제기, 다름에 대한 이해, 종교 간 대화와 평화운동과 같은 시민평화운동 10계명을 제안하였다. 시민평화운동 10계명을 YWCA 평화운동에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3

1 왼쪽부터 채혜원 목사, 최형선 실행위원, 정지석 목사  
2 회원Y 포럼 대표단의 지역별 토론  
3 토론내용 발표 강은혜 대전Y 부장

두 번째 발제자 채혜원 목사는 'YWCA "나눔으로 평화" 운동—한국기독교의 한반도평화운동에 대한 이해'란 주제로 발제하였다. YWCA 정책 '나눔으로 평화'를 한반도평화통일운동으로 접근하였다. 채 목사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운동은 온전한 땅, 온전한 사람을 위한 생명살림운동의 관점으로 조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읽어보자면, 정전 체제 속의 한반도 60년은 냉전 이데올로기와 체제, 정치적 주도권 싸움으로 분단의 상처로 찢겨진 생명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념과 정치적 냉전논리에 편승하면서 적극적으로 통일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분단을 고착화시킨 죄를 범하였음을 지적하였다. 한반도 분단 구조를 극복하고 분단으로 인한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평화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임을 일깨웠다. 채 목사는 한반도평화통일운동에 한국 기독교 통일운동과 한국YWCA 평화운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반도 통일논의의 활성화를 지속하는데 교회들의 공헌이 주요했으며, 이를 통한 남북 간의 만남, 교류, 협력은 평양에서의 남북공동기도회로 이어지고 남북나눔운동을 통한 평화운동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한국YWCA의 평화운동 또한 평화통일운동으로 시작되어 86년부터 북한바로알기 모임, 87년 북한Y 재건을 위한 모금운동을 비롯, 96년부터 시작한 북한어린이 분유보내기 운동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채 목사는 나아가, 기독교계의 대북지원, 남북나눔운동이 북의 기독교가 사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식량지원과 함께 자립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개발협력으로의 집중이 요구된다고 말하였다.

이어 평화포럼 회원Y대표단의 토론이 있었다. 토론 내용은 YWCA 평화운동의 의의 및 우리 지역의 Y 평화운동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YWCA 평화운동은 우리 삶 속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실천적으로 삶의 십일조 운동을 확산하고 남북간 동반자적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것으로 운동 방향을 정립하였다.

YWCA는 평화운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망각하고 있는 평화의 이슈를 제기하는 그리스도적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고 생활 속 운동을 실천함으로써, '나눔으로 평화' 정신을 우리 지역 사회와 나누고자 한다.

## 제1차 평화포럼 회원Y 대표단 지역별 토론 우리 지역의 YWCA 평화운동을 제안합니다!

- 경기 지역**
  - 걷기 운동과 함께 하는 동네 평화순례
  - 함께하는 평화기도와 평화기도 문자알림
- 북부 지역**
  - 지역 주민들에게 북한의 현실을 알림
  - 가정평화만들기를 시작하여 지역사회로 확산
  - 통일전망대 순례 기도회
- 중부 지역**
  - 평화적갈등해결 : 토론, 대화 운동 확산
  - 다양한 방법으로 평화 순례
  - 매달 아나바다 운동, 즐거운 평화프로그램 개발
- 서부 지역**
  - 신앙적, 시민운동적 관점에서 우리 자신 돌아보기
  - 탈북자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동부 지역**
  - 지역의 평화순례길 개발
  - 청소년 대상 평화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지역 내 평화운동단체 연대 강화
- 연합회**
  - 청년 평화교육, 감수성훈련프로그램 마련
  - 체험할 수 있는 이사위원교육프로그램 마련 (예: 평화 순례, 갈등 현장 방문 등)

# 십자가에 가까이

글 | 주선애(연합회 명예연합위원)

우리Y의 기본은 기독교정신 운동체다. 그러면 기독교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그것은 “십자가”라고 함축시켜 볼 수 있다.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의 역사적 사건이다.


**01 하나님과 인간 화해의 십자가**  
십자가는 죄를 짓고 멀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영원히 멸망해야 할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어 육체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우주적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다시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영적관계를 회복하여 그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도 영원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화해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도록 요청받는다. 우리를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와 교제하며 풍성한 영적 삶을 살게 하신다.

**02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전능하신데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극형을 받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속성과 동시에 공의의 속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가장 적은 허물과 죄도 용납하실 수 없다. 그래서 그의 외아들이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게 하신 것이다. 우리 각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야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 1:20)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 16:24)

교회가 침체되어가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기독교인들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 밑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죄의식이 있어야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용서받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람을 섬길 수 있다. 주님의 용서를 확실히 체험하는 경험이 있어야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한 영혼을 위해 충성스럽게 봉사할 수 있다. 용서의 기쁨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남을 위해 일하려 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

**03 우리가 저야하는 십자가**  
십자가로 용서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다. 이제 우리 Y는 9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회와 교회를 위해 주님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 더 크게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다른 삶을 살 의무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서 다시 주님과 더욱 깊은 화해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각기 십자가 고난을 무릅쓰고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어 세계에 우뚝 세우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세계를 정신적, 영적으로 지도하는 나라로 이끄실 것이라고 믿는다. 이때에 우리Y의 사명은 지극히 큰 것임을 확신한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감으로 이 모든 일을 시작하기를 소망한다. 

# 문태임 선생님, 편안히 쉬시옵소서

차경애(연합회 회장)



고(故) 송계 문태임

1910. 10. 19	태어나심
2012. 4. 15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심
1930. 3	호수돈 여자고등학교 졸업
1932. 3	경기도 사범학교 졸업
1943. 4 ~ 1980	학교법인 호수돈 학원 이사, 이사장
1958. 9 ~ 1985	대한YWCA연합회 위원 (재정위원회, 건물관리위원회 등)
1963. 9 ~ 1991. 7	대한YWCA연합회 실행위원
1974. 4 ~ 1992. 8	(사)대한YWCA연합회 후원회 이사
1982. 7 ~ 1985. 7	대한YWCA연합회 부회장
1985. 7 ~ 1988. 6	대한YWCA연합회 회장
1990. 11 ~ 1992. 8	(사)대한YWCA연합회후원회 이사장
1985. 7 ~ 1988. 6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
1985. 7 ~ 1988. 6	한국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이사
1985. 7 ~ 1988. 6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사
1991. 7 ~ 현재	(사)한국YWCA연합회 명예연합위원
1968. 3 ~ 현재	대한감리회 정동교회 원로장로
1986. 5. 20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2003. 6. 25	제35회 YWCA전국대회 대상 수상
2009. 6. 23	제37회 YWCA전국대회 50년 봉사상


이 세상에서의 많은 책임과 소명을 다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가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 선생님의 소녀처럼 순수한 미소가 벌써부터 그립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젊은 시절 Y-단들과 함께 하는 청소년 활동으로 한국YWCA의 지도자로 활동을 시작하시어 대한YWCA 연합회에서 부회장과 회장을 맡으시어 1980년대에 한국YWCA를 이끌어가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호수돈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시며 교육계에서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격동하는 1980년대에 한국YWCA의 회장직을 맡으시어 명철한 판단력과 지성으로 저희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사회계몽과 봉사활동으로 뿌리내렸던 이 전의 YWCA의 활동은 1980년대 후반부터 선생님의 지도력과 함께 여성인권운동, 노동문제, 평화통일문제 등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다양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언제나 저희를 따뜻하게 대해주신 온화하고 넉넉한 분이셨습니다. 은퇴하신 후에도 YWCA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으시며, 절기마다 맛있는 음식, 그리고 잊지 않고 챙겨 주시는 자그마한 선물들을 통해 선생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배지도력 양성에도 뜻을 가지고 후원하시어 지금도 전국회원대회에서는 선생님의 이름을 딴 문태임상이 지정되어 회원YWCA의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주 뵙지는 못하여도 선생님께서 YWCA의 대선배님으로 함께 계신다는 생각에 맘 한편이 든든하였는데, 이제 선생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지성과 인격을 갖춘 조화로운 리더십은 우리 후배들에게 큰 모범으로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 한국YWCA는 생명과 평화의 정의가 살아숨쉬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선생님!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으십시오. 사랑합니다. 

# 연합회 소식

## 4월 월례아침기도회



연합회는 4월 2일 오전 7시 30분에 4월 월례 아침기도회를 열었다. 주선애 명예연합위원이 '십자가로 가까이' 라는 말씀을 나누었으며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YWCA 월례아침기도회는 전국의 회원Y가 함께하고 있으며 기도회를 통해 YWCA를 영적으로 깨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 한국YWCA 창립 90주년 기념식 및 제1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한국YWCA 창립 90주년 기념식 및 제1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이 4월 20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열렸다.(자세한 내용 p.6~9)

## 제1차 YWCA 1단계 실무자교육



제1차 YWCA 1단계 실무자교육이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버들캠프장에서 있었다. 회원Y 본부 소속의 1년 미만 실무자 총 43명 참석하였다. 격려와 인사(차경애 회장), 한국Y 목적과 정체성 이해(김기동 실행위원), YWCA 실무이

해 교육과정이 있었으며, 윤정향, 김기현, 명진숙, 남등 타시민단체 활동가들, Y선배들과 함께 토크콘서트 "Herstory" 시간을 가졌다. 1단계 교육을 통해 실무자들 간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었다.

## 다문화청소년학습지원-다래교실 협약식



연합회는 3월 27일 한국씨티은행과 다문화청소년 방과후 학습지원 프로그램 '다래교실' 협약식을 갖고 씨티재단 후원금 미화 2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다문화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교실"이라는 뜻의 '다래교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 방과후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학생:교사 비율을 5대1의 소그룹으로 형성하여 1년 여간 운영한다. 프로그램 대상은 일반 저소득층 청소년을 포함하여 이주 결혼가정의 자녀, 북한이탈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저소득층의 다문화청소년이며, 180명의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과 40여명의 교사들이 1년 여간 함께한다.

## 교회협력 북한어린이돕기 운동전개

연합회는 교회협력 북한어린이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3월 23일 차경애 회장, 유성희 사무총장, 연합회 국부장 및 담당 실무자가 참석하여 마포 성광감리교회에서 금요예배를 함께 드리며 북한어린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였다. 성광감리교회는 북한어린이돕기운동에 참여하기로 하고 매달 10만원 교회선교헌금을 후원하기로 하였다.

## 제1차 YWCA 평화포럼

연합회는 2012년을 'YWCA 평화운동의 해'



로 선포하고 3월 29일 제1차 YWCA 평화포럼을 열었다. 앞으로 평화포럼은 11월까지 격월로 총 5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 p.22~23)

## YWCA 직업훈련담당실무자 워크숍

2012 YWCA 직업훈련담당실무자 워크숍이 4월 3일부터 4일까지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29개 회원Y 37명의 실무자와 연합회 돌봄과 살림팀 위원이 참석하였으며, 한국Y가 유·무료사업소개 운영을 병행하면서 당사자들을 조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지난 12월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의미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다음 워크숍에서는 조합설립과 운영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 2012 3차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대상 선정

연합회는 4월 12일 2012 3차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자문단회의를 열고 2012 3차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했다. 선정결과는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www.ywca.or.kr)

## 동정

- 문태임 연합회 증경회장 소천(2012. 4. 15)
- 길광민 익산YWCA 회장 취임(2012. 3. 16)

# 회원YWCA 소식

# YWCA News

## ● 북부

### 강릉 YWCA

박현순 간사

#### ● 고령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강릉Y는 4월 23일부터 만50세이상의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주유보조원 교육을 실시한다. 취업의욕 고취프로그램, 안전관리 교육, 스트레스 이기는 법,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교육을 프로그램으로 하며, 이 교육을 디딤돌 삼아 준·고령자 일자리창출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 동해 YWCA

김정은 간사

#### ● 새봄맞이 국토 대청결 운동



동해Y는 3월 18일 해변, 계곡, 도로변 등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쓰레기 치우기 활동을 하였다. 이 운동을 통해 청정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생명사랑을 바탕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애郷심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

#### ● 직업상담프로그램

동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3월 5일부터 9일까지 여성취업희망자 대상 직업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육아와 가사로 경력이 단절된 주부와 사회초년생들에게 필요한 직업상담교육을 통하여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에는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한다.

### 원주 YWCA

김혜선 간사

#### ● Y-틴 환경지킴이 발대식

원주Y Y-틴 환경지킴이 발대식이 있었다. 환경사랑·생명사랑 청소년들이 모여 2012년도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또한 이 발대식이 청소년들의 만남의 장이 되어 Y-틴 의식 고취와 YWCA 생명사랑운동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인천 YWCA

이하나 간사

#### ● 자원순환 녹색 나눔 장터 개장식

인천Y는 4월 14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자원순환 녹색 나눔 장터 개장식을 열었다. 인천Y 주관, 인천광역시 주최, 환경부가 후원한 이 장터는 매월 둘째, 넷째주 정기적으로 열리는 아나바다 장터로, 수익금의 10%를 기부하여 한부모 가정을 위한 나눔으로 사용된다. 이날 개장식에는 시민 약 4,500여명과 돛자리 판매 192개팀(768명)이 참가하였으며, 다음 장터는 4월 28일 예술회관 광장에서 "가방 아나바다"의 주제로 열린다.

**춘천 YWCA** 이명화 간사

● 산모돌보미양성교육

춘천Y는 4월 2일부터 16일까지 산모돌보미 교육을 진행하였다. 모유수유를 위한 가슴마사지법, 산후 체조, 산육기 관리, 영양과 위생관리, 신생아돌보기,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문적인 산모돌보미로서 활동하기를 기대한다.

## ● 경기

**고양 YWCA** 전선영 간사

● 신개념여성정치토크쇼



고양Y는 고양시여성정책네트워크 여성단체들과 함께 4월 3일 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제19대 국회의원후보들을 초청하여 오한숙희 여성학자와 함께 여성친화적 정책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참여회원들의 실시간 문자질문을 통해 생동감 있는 정치토크가 이어졌으며 다양한 문화공연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성남 YWCA** 황정아 간사

● 배우고 체험하는 씩크머니 교육



성남Y는 배우고 체험하는 씩크머니 교육을 4월 13일 성남시 도촌중학교, 4월 20일 용인시 보정초등학교에서 진행하였다. 쉽고 재미있는 게임과 용돈교육, 물물교환 등의 활동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경제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가진 경제주체로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수원 YWCA** 정지영 간사

● Y-틴 인준식



수원Y는 4월 7일 Y-틴 3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 평생학습관 강당에서 '2012 수원 Y-틴 인준식'을 개최했다. 예배를 시작으로 인준식, 골든벨을 진행하였다. 학교 Y-틴 15개와 센터 Y-틴 2곳을 포함한 총 17개 Y-틴이 인준을 받고, 담당교사 15명과 청소년지도자 16명이 임명을 받았다. 이를 통하여 Y-틴 활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각 Y-틴 간 네트워크 형성과 친목을 다질 수 있었다.

**안산 YWCA** 문성은 간사

● 여성들의 유쾌한 퍼플파티 정치토크쇼



안산Y는 3월 31일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의제21과 공동으로 와스타디움에서 '퍼플파티 정치토크쇼'를 열었다.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 제19대 국회의원 후보자를 초청해 후보들의 여성공약과 성평등 인식 수준을 확인하는 자리로 토크쇼 형태로 재미있고 유쾌하게 진행하였다.

**의정부 YWCA** 김은영 간사

● 청소년부 사업 간담회

의정부Y는 3월 30일 의정부 지역 내 학교장 20여 명을 모시고 청소년부 사업 간담회를 열었다. 씩크머니, 환경교육, 직업체험교육, 지역아동센터 씩크머니 등 청소년 프로그램 안내와 함께, 협력학교를 선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YWCA가 공교육과 협력하여 효과적인 청소년 운동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파주 YWCA** 이정심 간사

● 찾아가고 싶은 적성 어유지리 '꽃마을' 만들기 개최식

파주Y는 4월 13일 적성 어유지리와 2리 '꽃마을' 만들기 개최식을 가졌다. 2012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농촌살리기의 일환으로 적성 어유지리와 2리에 이팝나무 520주를 식재하고, 코스모스 꽃씨를 심는 일이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적성 어유지리에 여행객 유입 촉진으로 인한 다양한 소득원 창출, 이농방지 및 다수의 젊은 농촌후계자 확보, 농촌발전을 위한 민,관,군의 연대적 책임감 고취 및 자원봉사의 활성화의 효과를 기대해본다.

## ● 중부

**논산 YWCA** 김화선 간사

● 신입이사 및 실무자 영성교육

논산Y는 연합회 새벽종소리 교재를 활용하여 실무자 및 신입이사 대상 영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영성교육을 통해 YWCA의 목적과 역사, 정체성을 바로 알며, YWCA안에서 운동가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나눔을 통해 서로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고자 한다. 실무자, 이사들이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Y운동가로 거듭나길 바란다.

## 대전 YWCA 강은혜 부장

### ● 대전YWCA 66주년 기념 자원지도자·실무자 한마당



대전Y는 3월 27일 상젤리제 웨딩홀 뷔페에서 대전 YWCA 66주년기념 “자원지도자·실무자 한마당”을 열었다. 자원지도자·실무자 110여명이 참석하여 대전 YWCA 66주년을 축하하며 자원지도자와 실무자간의 소통과 나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다.

## 세종 YWCA 홍진영 간사

### ●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

세종Y는 그동안 진행한 아침밥 먹기 운동 “애들이 밥먹자”의 지속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고 시골에 있는 3곳의 학교를 선정하여 4월과 5월 주먹밥 나누어주기 운동을 할 예정이다. 이번 운동은 세종Y 이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YWCA의 안전한 먹을거리 운동이 확산 될 것을 기대한다.

### ● 바리스타 양성과정

세종Y 고령자인재은행은 바리스타 양성과정을 개설하였다. 50세 이상의 준고령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고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지역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 제천 YWCA 류인숙 팀장

### ● 돌봄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살림돌보미 교육

제천Y는 4월 12일~13일 돌봄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살림돌보미 교육이 있었다.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웃음치료와 성희롱 관련 교육, MBTI 검사로 진행되었다. 이 교육을 통하여 자신을 이해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충주 YWCA 김애영 부장

### ● 제2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충주Y는 3월2일부터 4월 21일까지 제2기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충주YWCA 사회교육센터와 가정폭력상담소 주관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100시간 소정의 교육을 하였다. 총23명이 가정폭력전문 상담원으로 수료예정이다. 이번 과정을 통해 지역에서 가정폭력방지에 함께 참여할 활동가와 자원봉사자의 인력을 확보할 것을 기대한다.

## ● 서부

## 광양 YWCA 정정숙 간사

### ● 부활절 기념 계란 나누기

광양Y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4월 6일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 80여 분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삶은 계란을 나누어드렸다. 그리고 광양Y를 후원해주시는 분들에게도 삶은 계란을 나누어드리며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광주 YWCA 임서하 간사

### ● 광주YWCA 가족보호시설 리모델링 준공감사 예배 및 개소식



광주Y 가정상담센터가 3월 28일 내·외 귀빈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감사 예배 및 개소식을 가졌다. 지난 12월 21일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개소식을 한 가정상담센터는 10세 이상 가정폭력 피해 아동과 동반 입소하여 생활이 가능한 가족단위의 독립적인 주거가 보장되는 공간이 될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의 상담 업무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으로써 지역사회에 큰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해본다.

## 남원 YWCA 조윤희 팀장

### ● 회원증모 발대식

남원Y는 4월 2일 2012년도 남원YWCA 회원증모 발대식을 열었다.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어린이와 청소년을 살리는 교육환경, 땅과 생명을 살리는 지역사회 운동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회원을 발굴하기 위해 힘찬 결의를 다졌다.

## 서귀포 YWCA 김지희 간사

### ● EM강사양성 기초교육

서귀포Y 고령자인재은행은 서귀포지역 만 50세 이상의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3월 28일~29일 EM강사양성기초교육을 진행하였다. 본 교육에 참가한 한 고령자는 “잘 모르고 있었던 환경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얘기하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앞으로 본 교육 이수자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EM강사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수료 후에는 서귀포Y소속의 EM강사로 파견될 예정이다.

## 여수 YWCA 이경진 간사

### ● Y-틴·대학Y 인준식



젊은 사고와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는 청년공동체, 여수Y Y-틴과 대학Y의 인준식이 3월 10일 여수Y회관 대강당에서 있었다. 1부 예배(정풍기복사, 여수한빛교회)를 시작으로, 2부 인준식(박숙희청소년위원장), 3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2011년 한 해 동안 실시했던 청소년들의 활동을 보고하고, 희망을 다짐하며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였다. Y-틴 동아리(또나미, 예반)와 대학Y 동아리(W.H.Y.), 총 3개의 동아리가 인준을 받으며 청소년회원들이 한 데 모여 나눔과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또한 YWCA 정신을 바탕으로 사랑과 협력으로 서로 도우며, 동아리 역할을 해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2012~2013년 향후 2년간 주력운동인 '청년리더십개발'의 주제와 부합하여 그 의미를 더하였다.

## 전주 YWCA 김은진 간사

### ● 학교폭력예방교육 도내 순회교육



전주Y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4월 6일 진북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내가바로 지킴이'를 순회교육을 하였다. 도내 40개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하며 학급별 피해자와 가해자 역할극을 통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청소년 눈높이 특강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재인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청년성을 키우기 위해 마련되었다.

### ● 놀토지원사업 '상담아, 놀재'

전주Y 청소년지원센터는 4월 28일 초등학교 저학년 30명을 대상으로 무료 놀토지원사업 '상담아, 놀재!'를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문학치료와 함께하는 감정표출프로그램으로 '소피가 화나면~'이라는 놀이 텍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만나고 이야기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 아동들의 적절한 감정표출을 도와 심신의 안정을 돕도록 기획되었다.

## ● 동부

### 김해 YWCA 배정숙 실장

### ● 여성친화 도시탐방 프로젝트

김해Y는 4월 24일 김해Y 강당에서 여성친화 도시탐방 프로젝트를 개강하였다. 활동가 20명이 참여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선정과 관련하여 여성이 주체가 되고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총 8주간 실시되며 5회의 강의와 3회의 탐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김해 지역의 여성친화 도시 만들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

### 대구 YWCA 김세형 간사

### ● 대구YWCA 창립 89주년 기념예배 및 아침식탁



대구YWCA 창립 89주년 기념예배가 4월 19일 대구Y회관에서 있었다. 올해 89주년을 맞아 대구Y는 89년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위해 달려갈 것이다. 한국장애인소리예술단의 축하 공연과, 빈곤국가여성 리더십을 개발을 위한 아침식탁이 이날 함께 진행되었다.

### ● 대구YWCA 노인복지센터 5주년 기념예배



대구Y 노인복지센터는 4월 6일 개소 5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김희영 위원장을 비롯하여 회원, 대상자어르신 등 50여명이 모여 5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 마산 YWCA 이애라 팀장

### ● EM저장통 설치



마산Y는 EM발효액의 효과를 홍보하고 발효액 사용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1톤가량의 EM저장통을 마산YWCA회관에 설치하였다. 발효액은 창원시가 제조하여 월 1회 보급하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EM을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EM발효액 사용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땅과 생명을 살리는 운동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폭넓게 적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부산 YWCA 여진경 간사

● 2340 회원교육

부산Y 회원부에서는 2340 회원교육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4월 5일 진행하였다. 총 88명이 모인 가운데,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세상, 핵 없는 세상을 위해 김익중 교수(동국대학교 의과대학)를 모시고 탈핵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젊은 지도력 양성 및 발굴을 위해 2340 회원교육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사천 YWCA 장정자 간사

● 2012년 상담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사천Y 사천건강가정상담소는 3월21일 2012년 상담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최근 학교 폭력이 범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이 때에 양성교육을 이수한 상담자원봉사자들은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할 예정이며 학교폭력예방에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한다.

진주 YWCA 최예진 간사

● 아시아담은꼴 이야기소모임

진주Y 다문화교육부는 "아시아담은꼴 이야기소모임"을 운영한다. 결혼이주여성이 본국과 한국의 그림책 비교를 통하여 문화의 보편성을 발견하고, 다문화작은도서관에 맞는 자녀교육프로그램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소모임은 5개국 결혼이주여성 20여명이 함께하며 다문화 작은도서관 '단비'에서 진행된다.

● Y-틴·대학Y 인준식

진주Y는 3월 31일 Y-틴, 대학Y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부 클럽 인준식이 있었다. 1부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2부에는 2011년 청소년부 활동영상, 클럽 임원 뱃지 전달식, 위임장 수여식이 있었으며, 3부에는 각 클럽별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포항 YWCA 안진숙 간사

● 투표참여 촉구를 위한 캠페인

포항Y는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경북 사무국으로서 3월 14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발대식 및 부정선거 감시, 고발 촉구 범국민 캠페인 시작으로, 3월 29일 클린-존 선거운동 의식개혁 촉구 캠페인을 벌였다. 또한 4월 6일 북포항 우체국에서 투표참여 촉구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4월 1일부터

약값이  
내렸습니다

국민약값부담이 평균 14%, 총 1조7천억원  
절감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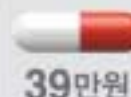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더욱 아껴  
더 많은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제비(약품비+주재료) 비중은 2010년 35.6%로 10년만에 9%p나 증가하였습니다. 국민 의료비 중 약제비 부담도 OECD 평균보다 60%나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약제비 비중이 높으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13,800여개 품목 중 6,500여개 품목의 가격을 내렸습니다. 약가인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약가인하"는 불가인정과 건보재정 안정화를 통한 시민부담 경감 및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입니다.

약가인하로 인한 사례 1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3가지 약을 만성 복용하는 김무열 할아버지는 약값의 본인부담금이 앞으로 연간 약 39만원에서 28만원으로 줄어듭니다.



39만원

28만원

약가인하로 인한 사례 2

당뇨약을 드시는 이숙희 할머니의 약값 부담은 22만원에서 16만원으로 줄어듭니다.



22만원

16만원

"이번 약값 인하를 계기로 우리 제약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